

[창세기강해 44]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 하신다

[본문] 창 16:7~16 / 하용조 목사 / 페이지 수: 7

믿음은 사람 아브람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지만 십여 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자 순간적으로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약속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실수가 있고 순간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실수는 구원을 잃어버려 멸망에 이르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실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수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런 사례와 아브람의 불신앙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은 몸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들의 죄악 된 모습입니다.

사래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되었고 아브람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래는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도망칩니다.

7~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결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학대를 당하고 쫓겨나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래에게는 복을 주셨지만 하갈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원통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람도 자기를 버렸고 여주인 사래도 자기를 학대했기에 그녀는 어디에 가서도 이런 사실을 하소연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로 갔다가 한 샘물을 만나 그곳에 앉아 낙망과 좌절을 되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사래의 여종 하갈아!”하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갈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위치는 사래의 몸중 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은 모든 철학자가 추구했던 질문이고 모든 종교가 생겨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란 우연히 태어나서 생존경쟁의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며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그저 사라져 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직장을 갖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선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반쪽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갑니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의 물음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도망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 태어나긴 했는데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는데 있습니다.

하갈의 대답은 철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내가 도망가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어디로 가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하갈은 마치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유리방황하며 떠나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갈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람에게서도, 사래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억울한 마음, 애통한 마음, 분한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4백년간 있을 때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의 기도와 신음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규했을 때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부자였지만 외로웠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삭개오의 그 침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곳을 지나실 때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편에서십니다.

제 위치로 돌아가라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도와주겠다든지, 복수해 주겠다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사래의 학대 아래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곳으로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믿음의 비밀은 ‘순종’이었습니다.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은 ‘만약 내 말을 듣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면 그녀는 변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종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말은 ‘본래의 위치로 환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된 행복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제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내가 싫어서 집밖으로 도는 남편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네 아내에게로 돌아가라’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이 힘들게 해서 밖으로 도는 아내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 위치로 돌아가라”

아들의 행복은 아버지 어머니와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 위치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하갈을 괴롭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래의 몸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어렵지만 만약 하갈이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결정했다면 하갈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성격도 죽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과 윗사람은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위치가 있고 선생님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깨어진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

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가정의 축복은 여러분의 축복으로 완성됩니다. 자녀간의 회복도 순종으로 회복됩니다.

축복의 열쇠는 '순종'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순종하면 악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그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은 악속의 자녀를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만큼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악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특권은 이스마엘보다 많은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속의 자녀에게서 가장 큰 특권은 그 자손 가운데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도 하나님을 독점하는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 율법을 받은 자의 하나님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아직도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응답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으며 그 뜻은 ‘고통에서 해방하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식구만 돌보기 원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편이 아닌 사람에게 잘 해주시기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촉구시합을 보실 때마다 고민에 빠지십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철야하고 금식기도 하는 편을 이기게 해주셔야 할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믿는 팀이 예수 안 믿는 팀에게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많은 남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는 북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PLO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넓고 크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비록 이스마엘이 실수로 태어난 자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약속의 자녀처럼 하갈의 자녀도 축복해 주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마엘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을 아주 응축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중의 들나귀 같이 살 것이다’라는 말씀은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 아랍 사람들, 낙타를 타고 들나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칼과 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테러와 폭력과 납치 같은 일들은 이 이스마엘 후예와 무관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테러를 받은 사람들은 또 다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의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형제의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코앞에 언제나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동편에 PLO가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래의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

13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느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의 생각에는 ‘사래의 하나님일뿐 나의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요, 소망 없는 존재요,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 나빠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래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서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본자나 서자나 똑같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갈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목자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얼마나 감동하고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래에 대한 분노도 다 풀리고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갖게 되었습

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랑할 용기도 주시고 용서할 용기도 주시고 회개할 용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장소의 이름을 ‘브엘라해로이’라고 지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브엘라해로이’의 뜻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의 서자도 약속의 자녀처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이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랑

‘이스마엘도 사랑한다’는 말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옆에 있는 불신자에게는 비춰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택 받았든지 그렇지 않은 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선택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며 선택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16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 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 육세 이었더라

하갈은 돌아갔으며 아브람은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사래도 받아 주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집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무서워서, 혹은 지긋지긋해서 못가시겠다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가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을 임신하였던 때는 85세였습니다. 아브람이 1백세에 이삭을 낳았으므로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나 손위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은 서자를 보고도 14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